

## 전기학회에 거는 기대

강 영 국

(대우전자 중앙연구소장)

그간의 전기학회의 연혁과 활동을 돌이켜 보면,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가지 감회에 젖어들게 되는 동시에 새로운 애정이 솟아남을 느끼게 된다. 우리나라 전기, 전자 학문의 발전 및 산업계의 발전에 미친 지대한 업적에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게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되는 면이 없지 않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간의 전기학회 활동을 반성하고 성찰하여 다가오는 2,000년대에 또 다시 번영하는 전기학회의 위상을 끝추 세우기 위해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크게 두가지로 정리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전기학회가 그동안 강전(전력계통)이라는 전통적인 분야에만 집착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전기분야는 학문적 발전을 거듭하면서 전자, 통신, 전산, 제어, 전기재료 등 많은 분야로 세분되었으며, 각 분야는 각자의 독자성을 확보하면서 서로 깊은 연관을 맺고있어 어느 한 분야만으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전기학회는 이러한 학문적 분화에 맞추어 질적, 양적 변화를 도모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전이라는 소위 전통적 분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다.

다음으로는 업계의 입장에서 기술학회를 바라봤을 때 현재의 학회 활동이 너무 아카데미한 면에 치우쳐 산업계와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고 느껴진다는 점이다. 주로 학술세미나 위주로 진행되며 참가자도 학교와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전공인들이

주를 이루어 산업체의 제품개발에 종사하는 전공인들과는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산업계쪽에서는 현재까지 주로 미·일 등 선진국에서의 기술도입과 모방개발을 통한 상품개발에만 급급한 결과 국내에서의 기술교류나 협력에 대해 직접적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학회 활동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태도를 견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전기학회가 산업계의 관심있는 몇몇 전공인들의 참여외에는 산업계와의 교류에 중요성을 갖지 못한 채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는 반성이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국가 산업의 가장 큰 부분인 전기·전자·통신분야의 기본이 전기라는 사실과, 그 활용범위가 무한한데 비해 아직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 미개척 부분이 많고 파급효과 또한 매우 크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현재와 같이 외부로 보여지는 내부지향적 전기학회의 모습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학회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과 위상에 대해 앞서 지적한 두가지 문제점과 연관해 이야기하여 보겠다.

먼저 전기학회의 활동이 그간의 주류를 이루었던 전통적인 분야의 집착에서 탈피하여 전기를 기초로 하거나, 전기와 관련되는 기술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싶다. 물론 이같은 요구가 학회 내부에서도 많이 수렴되어 제어계측 연구회, 전자계산기 연구회, 로보틱스 및 자동화 연구회 등

관련 기술분야별로 다수의 연구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라 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기술분야에 더욱 더 적극적인 접근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산업계와의 관계 강화이다. 본래 학회의 역할이 학계에서 생성되는 지식과 정보 등을 흡수, 산업계에 전파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산업계를 활성화시키고 또 역으로 학계가 번영해 국가 산업 및 기술발전에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계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산업체의 기술적 현안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및 자료의 제공으로서, 고속전철 개발에 대한 연구 및 자료 제공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둘째, 산업체와 관계 깊은 기술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 기능으로, 국내 기술개발력 취약으로 거의 전량외산에 의지하는 거버너 모터 등의 소형 모터류에 대한 공동개발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며,

셋째, 산업체에 속해 있는 회원간의 교류를 통해 기술교류 및 친목도모를 진작시키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산업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술분야를 주제로 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관련 연구소와의 산학협동 등을 지원하고, 또 개개의 회사가 개발에 참여하기엔 위험부담이 큰 프로젝트나 거대 프로젝트에 대하여 조인트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역할 수행이 있으며,

다섯째로, 급변하는 신기술의 대외창구로서 업체로서는 획득하기 어려운 선진국의 최신 학술 기술정보의 데이터센터로서의 역할수행 등이다.

앞서 지적한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을 통해 전기학회의 현재의 모습과 곧 다가올 바람직한 위상에 대해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점점 더 치열하고 열악해지는 국내 기술환경 속에서 기술개발만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인식으로 학계와 산업계를 선도적으로 연결하고 이끌어간다는 소명의식에 불타고, 그 일에 전력 매진하는 전기학회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